

색채와 빛을 향한 열정: 다채로운 컬러의 DEFY EXTREME으로 예술과 최첨단 워치메이킹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제니스와 펠리페 판토네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혁신적인 워치메이킹과 현대미술이 교차하는 콜라보레이션이 찾아옵니다. 스위스 워치메이커 제니스와 발렌시아를 중심으로 활약하는 아티스트 펠리가 판토네가 다시 한번 역동적인 빛과 컬러의 마법으로 시간을 표현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10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DEFY Extreme Felipe Pantone는 10월 27일부터 제니스 오프라인 및 온라인 부티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고주파 워치메이킹과 다채로운 멀티미디어 옵티컬 아트가 만나, 빛과 컬러가 어우러지는 역동성을 표현합니다. 혁신적인 고주파 워치메이킹과 다채로운 멀티미디어 옵티컬 아트가 만나 탄생한 빛과 컬러의 역동적 조화를 소개합니다. 미래지향적 워치메이커 제니스와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아르헨티나-스페인 출신의 옵티컬 아티스트, 펠리페 판토네는 2020년 역사적인 매뉴팩처 메인 빌딩에 방수포를 소재로 한 작품을 전시한 데 이어 2021년 출시 직후 매진된 리미티드 에디션 DEFY 21, 그리고 2021 온라인 워치(Only Watch) 자선 경매에 출품되어 기존의 제니스 시계 판매 기록(경매)을 갱신한 유니크 피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니스와 펠리페가 워치메이킹의 예술에 혁신을 일으킬 DEFY Extreme Felipe Pantone로 다시 한번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에 나섭니다.

다양한 형태를 넘나드는 독특한 시선으로 디지털적인 요소를 유형의 세계로 가져오는 펠리페 판토네는 다시 한번 제니스에게 극한의 도전 과제를 선사했습니다. 바로 그의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다채로운 빛과 디테일을 기계식 시계에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시계의 케이스라는 협소한 캔버스에 펠리페 판토네만의 특징인 다채로운 시각적 표현을 그대로 옮기기 위해 제니스는 새로운 솔루션과 혁신 기술을 찾아 나섰습니다.

펠리페 판토네는 이번 콜라보레이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스위스의 마스터 워치메이커 제니스와 함께 가슴 벅찬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계를 제작하기 위해 'Planned Iridescence' 시리즈에 적용된 몇몇 컨셉을 차용했습니다. 최초로 사파이어를 사용하여 빛을 비추면 즉시 황홀한 색채가 펼쳐지는 방사형 홀로그램을 제작했죠. 르 로클의 시계 제작팀과 장기간 의견을 주고받으며, 마침내 믿을 수 없이 놀라운 디테일로 가득한 시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샤프한 라인과 매혹적인 볼륨감을 지닌 DEFY Extreme은 섬세한 미니어처 디테일을 제작하고 조각 같은 깊이감을 표현할 캔버스로서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제니스와 펠리페는 오리지널 DEFY 21 Felipe Pantone 모델을 통해 처음 공개한 다양한 요소들을 연구하고 몇 가지 새로운 디테일 또한 추가했습니다. 시계에 가장 큰 영감을 준 것은 과감한 컬러에 메탈릭 요소와 수학적으로 계산된 형태 및 색채를 더해 아날로그와 가상 세계의 경계를 허무는 착시 효과를 연출한 펠리페 판토네의 작품, "Planned Iridescence" 시리즈였습니다.

미러 폴리싱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는 DEFY Extreme 케이스의 파셋은 조형적인 느낌을 더하고, 12각형 베젤과 크로노그래프의 푸셔 부분은 합성 사파이어와 비견되는 투명한 유리 소재인 투명 블루



YAS(yttrium aluminosilicate)로 제작되어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투명하면서도 선명한 색채를 선보입니다. 케이스의 네 모서리에는 “Felipe Pantone El Primero” 를 뜻하는 “FP#1” 이 인그레이빙되어 있으며, 투명한 블루 컬러의 DEFY Extreme Felipe Pantone처럼 투명한 블루 컬러의 실리콘 스트랩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트랩은 시계 뒷면의 버튼을 눌러 시계와 함께 제공되는 폴리싱 처리된 스틸 브레이슬릿이나 블랙 벨크로 스트랩으로 손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을 살펴보면 사파이어 디테일이 마치 투명한 메탈처럼 보이지만 빛을 조금만 비춰도 다채로운 색채를 띤 기하학적인 패턴이 나타납니다. DEFY Extreme Felipe Pantone의 다이얼은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탄생시킨 그 어떤 다이얼에서도 해내지 못한 역동적인 반전을 펼쳐냅니다. 형형색색의 컬러, 투명한 빛과 패턴의 교차는 펠리페 판토네만의 고유한 예술 세계를 보여줍니다. 다이얼 위에 아티스트의 작품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컬러를 유지하되,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빛에 반응하는 매력적인 디테일을 접목시켰습니다. 투명한 사파이어 디스크를 다이얼의 베이스로 사용하는 혁신적인 물리 화학적 프로세스를 거쳐 깊이가 100 나노미터에 불과한 마이크로 인그레이빙 패턴을 완성하는데, 이 혁신적인 프로세스는 사파이어에 무지갯빛 광채를 더해 빛의 각도에 따라 각기 다른 컬러가 반사되어 나타나는 패턴을 완성합니다. 이번 도전은 펠리페 판토네의 미학을 사파이어 크리스탈에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며, 시계의 특성에 맞춰 아티스트의 팔레트를 미니어처 형태로 재현하는 최첨단 기술을 찾기 위해 헌신한 제니스의 열정을 반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워 및 미닛 핸드와 무브먼트는 DEFY 21 Felipe Pantone의 무브먼트에 적용된 입체 PVD 기술을 기반으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무지갯빛 메탈릭 톤의 컬러 그라데이션을 구현합니다. 혁신적인 공정은 현재 표준화되었지만, 모든 핸즈는 서로 조금씩 다른 컬러를 띠며 더 특별한 개성을 자랑합니다. 크로노그래프의 미닛 카운터는 각각의 분을 다른 컬러로 구분 지어 다채로운 컬러 그라데이션을 선보이는 반면, 크로노그래프의 세컨드 카운터는 블랙과 화이트 라인으로 이루어진 섬세한 동심원이 무아레 효과를 연출합니다.

시계 내부에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지휘하는 엘 프리메로 0.01초 오토매틱 고주파 크로노그래프 역시 펠리페 판토네의 색다른 디자인으로 새롭게 재해석되었습니다. 오픈 형태의 별 모양 로터는 핸즈와 같은 레인보우 그라데이션 3D PVD로 마감 처리됩니다. 엘 프리메로 21은 현재 생산 중인 최첨단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이자 오차 없이 0.01초를 측정하는 유일한 칼리버입니다.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효율적인 구조의 레귤레이팅 기구 두 개가 각각 50Hz와 5Hz로 진동하며 크로노그래프 기능 및 시간 측정 기능을 작동시켜 크로노그래프를 사용해도 시계의 정확한 시간 측정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펠리페 판토네의 감각은 시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DEFY Extreme Felipe Pantone의 박스는 아티스트가 "PLANNED IRIDESCENCE"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아 특별히 제작한 예술 작품 프린트가 돋보이는 아트 북 형태로 제작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시계 다이얼과 같은 무지갯빛 색채를 표현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투명한 플렉시글라스 하드커버를 더해 케이스만으로도 하나의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DEFY Extreme Felipe Pantone는 시계 고유의 번호가 새겨진 10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며, 10월 27일 오후 2시(CET)부터 제니스 오프라인 및 온라인 부티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니스: 꿈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 자리 잡았으며,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 비행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Louis Blériot)부터 성층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제니스는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드림허스(DREAMHERS) 플랫폼을 마련해 선구적인 여성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제니스는 1969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를 출시했으며, 계속해서 0.1초까지 측정 가능한 Chronomaster 컬렉션과 0.01초의 정밀성을 갖춘 DEFY 컬렉션을 통해 정밀한 고진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 측정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혁신은 곧 책임을 의미합니다. 제니스 HORIZ-ON 이니셔티브는 포용성과 다양성, 지속 가능성, 직원의 복리후생이라는 세 가지 헌신을 약속합니다. 제니스는 1865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차원을 향한 열정적인 도전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꿈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

DEFY EXTREME FELIPE PANTONE

레퍼런스: 03.9100.9004/49.1210

핵심 사항: 0.01초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제니스만의 시그니처인 초당 1회 회전수의 역동적인 성능(크로노 핸즈용). 시계용 이스케이프먼트 1개(시간당 36,000회 - 5Hz), 크로노그래프용 이스케이프먼트 1개(시간당 360,000회 - 50Hz). 크로노미터 인증. 스크류-인 크라운. 교체 가능한 스트랩 시스템. 스트랩 2개 포함: 폴딩 버클이 장착된 러버 스트랩 1개 & 벨크로 스트랩 1개. 사파이어 다이얼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9004

파워 리저브: 최소 60시간

기능: 중앙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즈. 9시 방향에 위치한 스몰 세컨즈. 0.01초 크로노그래프: 초당 1회 회전하는 센트럴 크로노그래프 핸드, 3시 방향에 위치한 30분 카운터, 6시 방향에 위치한 60초 카운터, 12시 방향에 위치한 크로노그래프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션

마감: 무브먼트에 루테늄 컬러 메인 플레이트 + 새틴 마감 처리된 스페셜 "레인보우" PVD 컬러 로터

가격: 29900 스위스 프랑

소재: 폴리싱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및 블루 YAS

방수: 20ATM

다이얼: 무지갯빛 광채를 더하는 펠리페 판토네의 아트웍 패턴을 장식한 틴트 처리된 사파이어

케이스: 45 mm

아워 마커: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베이지 코팅

핸즈: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레인보우" PVD 코팅 & SLN C1

브레이슬릿: 투명한 블루 러버. 스트랩 2개 포함: 폴딩 버클이 장착된 러버 스트랩 1개 & 벨크로 스트랩 1개.

버클: 스테인리스 스틸 폴딩 클래스프

